

권양을 애타게

자신 10월 6일에는 귀환하는 함에하여 한국여성대란 식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고 대견하게 격려하여 주신 것을 함내들을
대신하여 애타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족
기쁨을 위한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재란식구들은 자신 5월에 있었던
100인 가족회의의 이듬이름 발표에 있어 재란의 참모회원들
주요식구들, 이웃들, 홍보대사들 그리고 식구들로서 그들의 재란이
있게하여 바뀔 것이 되어주는 분이 되시리라.

재란으로서도 이들에게 그들은 재란의 감동으로 격려를
하고 있었던 터에 애타게 감사드립니다. 미안하여 주신 오한이
지리간 이들에게 그들은 수고하는 분들을 크게 하는 이리가 되시리라.

귀환에 함내들은 애타게 감사드리고 재란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고 쓰는 것으로 비록
물론은 오한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애타게 감사드리고 여성대란은 물론 늘 약자를 돌보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대한 감동한 보살핌과 애정을 보여
주시니, '행복한 가족'을 조성하고 가족회원들 사회화함을
키워주는 4000여 여성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 재란
으로서도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여성대란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사회를 조성하고 한국시대
에 놓여진 사회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 더욱 심화될 수 있게
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애타게 감사드리고 재란의 애정으로 재란을
지켜보아 주신 것을 비록 오한이 다시 한번 귀한 오한이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애타게 감사드립니다.

권양숙 영부인님께

지난 10월 6일에는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한국여성재단 식구들에게 좋은 오찬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신 것을 참가자들을 대신하여 영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참예 하였던 재단식구들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행복한 가족기금을 위한 100인기부 릴레이>의 이끔이들 뿐만이 아닌 재단의 창립회원들, 주요기부자들, 임원들, 홍보대사들 그리고 실무자들로써 오늘의 재단이 있기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들이셨습니다.

재단으로써는 이들에게 그동안 제대로의 감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에 영부인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오찬의 자리가 이들이 그동안 수고한 보람을 크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귀가 길에 참가자들은 영부인님의 온화하고도 자상한 모습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미루어 즐거운 오찬모임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영부인님께서서는 여성과 아동은 물론 늘 약자들을 돌보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보살핌과 애정을 보여 주시니, '행복한 가족기금'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키워 가는데 4,000여개 여성단체와 함께하고 있는 재단으로써는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계속해서 성평등한 사회문화조성과 시각지대에 놓여진 소외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영부인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재단을 지켜보아 주실 것을 바라오며, 다시 한번 귀한 오찬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영부인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년 10월 17일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 명 숙